‘의식 대전환’ 없이 4차혁명 없다

지원 스님의
선문답 이야기 ⑤





인식이란 자기 경험에서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식이란 각자에 따라서 각기 다르다. 인식만으로 참 자아에 이룰 수 없는 것은 인식이 곧 업식이기 때문이다. 업식은 경험이므로 경험에 의해서 인식되었다가 스스로 지어 스스로 받는다. 이것을 자업자득(自業自得)이라고 한다. 좋고 싫음이 업의 축적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물론 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 나를 위해 먹고, 나를 위해 일하고,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한다. 그러므로 ‘나’의 정체를 알지 못한다면 인생의 비밀을 풀 수 없다. 나란 무엇인가의 해답을 풀기 위해 영혼, 육체, 마음, 물질 등등. 고대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풀고자한 주제들이다.

‘내 생명은 영혼’이라고 하면서도 육체의 속박을 벗어날 수가 없으며, ‘내 생명은 육체다’라고 하면서도 알 수없는 영혼의 세계를 그리워 한다. 세상에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지만, 이 ‘나’의 정체에 대해서는 명쾌히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불성’이다. 이 세상 모든 생명들은 불성을 지니고 있다. 불성은 나와 여러분이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지혜, 맑고 밝은 지혜 광명을 가리킨다. 여래와 다를 바 없는 원만구족한 지혜 광명이다.

달마대사는 이렇게 말했다. “마음을 보면 부처요, 마음을 보지 못하면 중생이다. 그러나 불성은 중생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 중생의 마음을 떠나 따로 불성이 있다면 부처가 이제 어느 곳에 있겠는가? 중생의 마음이 곧 불성이다”

우리 모두 부처다. 우리에게 마음이 없으면 부처도 신도 될 수 없다. 부처를 그리는 것도 우리의 마음이고 신을 그리는 것도 우리의 마음이다. 모든 일의 주체는 마음이고 마음에 있다. 마음 안에 깊이 감추어진 불성을 깨닫기만 하면 된다. 우리는 저마다 존귀한 생명불성의 주인임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일체가 유심조’. 일체의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든다고 하였지만, 내 뜻대로 되는 일이 많지 않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음대로 일이 안되면 가슴 아프게 괴로워 한다. 그렇다면 내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 원인을 알면 괴로움서 벗어날 수 있다. 구하고자 하는 마음서 바라는 마음도 온다. 괴로움의 원인은 자성이 없는 모양(相)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다. 모든 고통은 구하는 상에서 온다. 그런데 우리는 왜 상만 구하는가? 모든 모양은 인연(緣生)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자체의 성품이 없다. 이 무상(無相)이 상이 아님을 알지 못하면 세세생생 행복할 수 없다.

참 나를 찾아서란 말을 많이들 하는데, 그렇다면 어디 가서 나를 찾는다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지금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몸도 움직이고 법문을 들으면서 집 생각하고 법회 끝나고 누구하고 만나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생각을 일으키는 그 전의 자체가 곧 나이다. 생각을 일으키기 전의 나가 ‘참나’인 것이다.

인식 만으로는 ‘참자아’ 이를 수 없어
인식 자체가 바로 업식이기 때문이다
좋고 싫음 분별은 업의 축적에서 나와

‘참나’란 있어도 있는 자취가 없는 묘유이다. 실상의 자리란 있어도 있는 자취가 없이 있는 묘유이다. 있어도 자취가 없이 있는 것이다.

한 예를 들어 보겠다 거울을 마음에 본자리라고 보고, 이 거울에 아무것도 없는 한 물건을 비쳤을 때, 거울에 물건이 나타나 있다. 분명히 아무것도 없다. 없었는데도 비치면 나타나 있다

있어도 있는 자취가 없이 있는 것이 묘하게 있는 것이다. 다시 거울에 비친 물건을 치워버리면 거기에 흔적이 남아 있지 않다.

분명히 없다. 그러나 없어도 없는 자취가 없이 있는 것이 진공이며, 이것을 ‘진공묘유’라 한다. 참된 공이 별도로 분리된 불변의 실체가 아니라 사물 그 자체의 존재 양상, 곧 다양한 인연의 조합인 연기(緣起)라는 말이다. 불교의 근본 교리 가운데 하나인 공(空)은 이 세계의 만물에 고정 불변하는 실체가 없음을 표방하는 개념이다. 대승불교 중관학파의 용수(龍樹)는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緣起)가 바로 공의 뜻임을 천명하였다. 연기는 이 세계의 만물이 다양한 인(因)과 연(緣)의 조합에 의해 생기하는 것이지, 고정 불변의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뜻한다.

이와 같은 공에 대해 예부터 몇 가지 잘못된 이해 방식이 있었는데, 중국 화엄종의 승려 법장(法藏: 643~712)은 〈반야심경(般若心經)〉 주석서인 〈반야바라밀다심경약소(般若波羅蜜多心經略疏)〉에서 이를 세 가지로 분류했다.

첫째는 공이 사물과 다르다는 견해이다. 이는 공을 사물과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물을 떠나 별도의 공을 구하는 것이다. 법장에 따르면, 이런 견해에 대처하기 위해 〈반야심경〉서 ‘색이 공과 다르지 않다(色不異空)’라고 하였다.

둘째는 공이 사물을 소멸시킨 것이라는 견해이다. 이는 이 세계의 구체적인 사물을 소멸시킨 뒤 남는 빈 공간을 공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런 견해에 대처하기 위해 〈반야심경〉서 ‘색이 곧 공이다(色卽是空)’라고 하였다.

셋째는 공을 어떤 특정한 사물로 여기는 견해이다. 이는 공을 이 세계의 다양한 사물들과 마찬가지로 있는 존재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런 견해에 대처하기 위해 〈반야심경〉서 ‘공이 곧 색이다(空卽是色)’라고 하였다. 공에 대한 이런 잘못된 견해들을 타파하기 위해 불교도들은 진공(眞空), 곧 참된 공이란 이 세계의 사물 그 자체의 존재 양상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았다.

법성과 자성은 참다운 본성인 ‘진성’
진성,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것 아냐
불생불멸, 능히 생기기도 없어지기도

또한 이 세계에 있는 만물의 관점에서 볼 때, 만물은 고정 불변의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생성과 변화가 가능해진다. 다시 말해 만물이 공(空)하므로 비로소 생동감 있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이 세계의 만물과 공의 원리가 서로 장애함이 없는 관계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파악할 때, 진공 그대로 묘유가 된다는 관점이 성립한다. 이는 우리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는 관점으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부파불교 시기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와 같은 부파는 무상(無常)한 현실을 벗어나 무상하지 않은 열반의 세계에 도달하려는 사유 체계를 세웠다. 이에 따르면 열반은 무상한 현실과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진공묘유의 관점에 따르면, 진정한 열반이란 이 세계의 현실 속에서만이 실현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세계의 만물 자체에 공의 이치가 온전히 구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번뇌즉보리(煩惱卽菩提)’ ‘생사즉열반(生死卽涅槃)’과 같이 대승불교에서 제창된 내용 역시 이러한 진공묘유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우주의 본성이라 할 때 법성(法性)이라 하고 자기의 참다운 본성을 자성(自性)이라고 한다. 법성과 자성은 참다운 본성이라 하여 진성(眞性)이라고 한다. 진성이란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것이 아니다.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한다. 능히 생기기도 하고 능히 없어지기도 한다.

본래 생기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면서 능히 생기기도 하고 능히 없어지기도 한다. 이것을 가르켜 〈반야심경〉에서는 ‘불생불멸’이라 하며 법성계에서는 법성원융무이상. 우주의 모든 사물인 법성품은 원융하여 두가지 모양이 없다. 서로 다른것이 크고 적고 모순되고 대립된 것이 없다. 왜 작으냐면 작게 된 인연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큰 것은 왜 크게냐 하면 적은 것으로부터 생기기 때문이다. 큰 것이 없으면 적은 것이 없다. 적은 것이 없으면 큰 것도 없다. 두 가지 모양이 없다 ‘원융’이란 이것과 저것이 통하고 저것과 이것이 통한다.

〈前 조계종 포교원장, 육지장사 회주〉

www.1027beopnan.kr



제3회 10.27법난 문예공모전

2019.6.17(월) - 2019.9.20(금)

「10·27법난」이란?

1980년 10월 계엄사령부의 합동수사본부 합동수사단이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대한불교조계종의 승려 및 불교 관련자를 강제로 연행·수사하고, 포고령 위반 수배자 및 불순분자를 검거한다는 구실로 군·경 합동으로 전국의 사찰 및 암자 등을 수색한 사건을 말합니다.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주관 총무원 사회부 · 불교신문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공모개요
- 공모부문 : 시 · 산문 · 만화
- 공모내용
  - 시 : 2편이상(편당 분량 제한 없음)
  - 산문 : A4, 4장 이상 (종류 : 수필, 기행문, 콩트, 주장글 등)
  - 만화 : 1편(A4, 4컷 또는 8컷)
- 응모기간 : 2019. 6. 17(월) ~ 9.20 (금)
  ※작품접수(우편 혹은 홈페이지)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결과발표
- 결과발표 : 2019. 10. 4(금), (첫째주 발표)
  불교신문, 1027법난 문예공모전 홈페이지 게시예정

시상
- 시상인원 : 총 40명 내외 (일반 24편, 청소년 16편 등)
- 시상금액 : 총 3,740만원 상당

구분	시상수		부상
	일반부	학생부	
대상	3편 (부문별 각 1편) (총무원장상)	2편 (부문별 각 1편) (동국대학교 총장상)	일반 : 상장 및 상금 300만원 학생 : 상장 및 상금 200만원
최우수상	3편 (부문별 각 1편) (총무원장상)	2편 (부문별 각 1편) (동국대학교 총장상)	일반 : 상장 및 상금 200만원 학생 : 상장 및 상금 100만원
우수상	6편 (부문별 각 2편) (불교신문 사장상)	4편 (부문별 각 2편) (불교신문 사장상)	일반 : 상장 및 상금 100만원 학생 : 상장 및 상금 50만원
장려상	12편 (부문별 각 4편) (불교신문 사장상)	8편 (부문별 각 4편) (불교신문 사장상)	일반 : 상장 및 상금 50만원 학생 : 상장 및 상금 30만원

※ 일반부 : 누구나 응시 가능
(만화부문은 불교적 주제관련 이외 사회, 환경에 관한 주제도 응시가능)
※ 학생부 : 산문, 시만 응시가능. (만화는 응시 할 수 없슴)
만화응시시, 일반부로 지원가능
※ 상종 및 시상 내역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접수방법
- 접 수 처 :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신문 (☎02-730-4489)
- 접수방법 : 홈페이지 접수(http://1027beopnan.kr) / 우편(방문) 접수
  - 홈페이지 접수 : 응모하기 메뉴에서 작품 파일 등록
  - 우편·방문 접수 : 03144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67 전법회관 2층 1027법난 문예공모전 담당자 앞
※ 만화의 경우 원본 추가 접수

주의사항
- 모든 응모자는 응모 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 우편으로 제출 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작성 출력하여 제출.
- 홈페이지 접수 시 시 · 산문은 한글파일, 만화는 이미지 파일 첨부할 것
- 기존에 출품되지 않은 신작이어야 하며 순수한 창작물에 한합니다.
- 인적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응모작품이 순수한 창작물이 아닌 모방, 표절, 대리 작성된 작품으로 판명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며 수상 이후에 이같은 사실이 밝혀질 경우 수상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심사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심사를 통해 수상작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수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입상자의 판권 및 저작권 등 제반 권리는 주최측에 귀속됩니다.
- 참가비 없음

문의
공모전 담당자 박수진 : 1027contest@naver.com , 010-6611-4977